

윤동주 시 평가의 재조명 - 성서수용과 신앙발달단계를 중심으로 -

김 인 섭*

논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기독교시인들이 성경을 수용한 양상을 살피고, 성경을 수용하여 시작품에 표현한 기독교 신앙의 수준을 신학자의 신앙발달단계이론을 바탕으로 가늠해보고자 한 것으로, 윤동주 시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를 재조명하는 의미를 지닌다. 윤동주는 시의 깊이와 신앙의 수준이 조화를 이룬 시인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시 의식을 신학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일은 간단한 일은 아니나, 인유의 양상을 중심으로 시와 신앙이 공유하고 있는 지점을 상호 비교해봄으로써 시 평가의 새로운 관점을 확보할 수 있다.

본고를 통하여, 문학 비평가의 시선에 국한되지 않고 신앙발달의 관점을 병행하여 윤동주의 문학적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었다. 윤동주는 일생 동안 성경에 밀착해 있었고, 짧은 생애 동안 삶의 전환과 시세계의 질적인 변화를 몇 차례 보여 주었다. 파울러의 ‘신앙의 발달 단계’ 이론에 의거하면, 그의 시는 3단계의 ‘인습적 신앙’을 극복하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책임 있는 신앙의 수준인 4단계의 ‘개별적 - 반성적 신앙’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유학 시절의 작품, 『쉽게 씌어진 시』는 5단계의 ‘결합적 신앙(역설적 신앙)’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윤동주의 시는 문학적 평가나 신학적 판단이 상충되지 않는, 높은 수준의 전인격적 가치를 지닌 시인이자 신앙인이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고는 시인의 신앙고백 내용을 그대로 시적 주제로 파악하고 평가해온 기존의 시 비평 관행을 나름대로 극복해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기독교시인, 성경 수용, 시와 신앙, 파울러, 신앙발달단계이론

* 숭실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2013년 8월 19일 접수, 9월 23일 최종수정, 9월 24일 게재확정

I. 서론

윤동주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하여 일본에서 옥사할 때까지 성경을 매우 가까이 하였다. 할아버지가 교회 장로였으며, 부모와 형제 모두 기독교인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유아세례를 받았다. 학교도 거의 모두 기독교학교에서 수학하였다. 중학시절에는 교회 주일학교의 반사(班師)를 맡기도 하였고, 연희전문 시절에도 고향의 성경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연희전문의 교과과목에도 ‘성서’과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3학년 때에는 연희전문과 이화여전 학생들로 이루어진 이화여전 구내의 협성 교회에 출석하면서 영어 성서반에 참석하기도 하였다(송우혜, 1988: 219). 일본유학 시절 감옥에서도 일본어로 번역된 신약성서인 『영화대조 신약성서(英和對照 新約聖書)』를 옥중에서 읽었다.

윤동주는 짧은 생애에 많지 않은 작품을 남겼지만, 그의 시 의식이 변모할 때마다 시에 수용된 성경의 지식과 진리 인식도 깊은 영향을 끼쳐왔다. “기독교 정신의 육화라는 측면에서 우리 현대 시사를 되돌아 볼 때 윤동주를 뛰어넘는 시인은 드문 것 같다.”(김주연, 1984: 115)라든지, “그의 시는 문학의 차원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차원에서도 독자들에게 크나큰 도전을 안겨준다.”(류양선, 2011: 142)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성경에 대한 깊은 사고를 거쳐 그의 시가 육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동주의 시 작품은 평범하게 보이는 경우에도 성경의 원천을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시적 의미가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 편의 시를 전체적 의미로 파악하지 않고 몇몇 성경구절에 초점을 두고 시적 주제를 규정하거나, 역으로 그의 시적 의미를 성경적 교리에 꿰맞추어 해석하여 윤동주의 독자성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에서의 성경 수용은 수사학적으로 인유에 해당한다. “인유의 원천들은 현대 시의 제재나 주제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작품의 형식구조가 되기도 하면서 현대시인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김준오, 1982: 225)는 사실을 환기하면, 기독교 시인들의 성경 수용을 단순한 인용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시인의 내면세계나 당대적 삶의 의미를 형성하기 위해 시인이 의식적으로 차용하여 재문맥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의 사상은 시인의 신앙에 의해 현실적인 체험이 되고 육화됨으로써 시적인 변형을 거쳐 시의 주제로 표출된다.

성경이 내포한 진리는 흔히 인간적 논리를 뛰어넘는 역설적 성격을 지닌다. 시론에서는 삶의 초월적 진리를 내포한 심층적 역설로 분류한다. 기독교 세계관은 일반적으로 신의 예정론과 피조물인 인간의 자유의지가 서로 모순된 질서 속에서 구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역설적 성격을 내포한다. 신적인 진리와 인간적인 삶의 상호 모순성을 표현하는 기독교시인은 “각각의 자기의 본질을 손상시키지 않고 전체로서 모순이 통일된 상태”(오세영, 1989: 180)를 시로써 형상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의 기본 틀은 분리와 통합과 구원의 양식이다(현길언, 2002: 24-25). 인간은 하나님과 통합되었는데, 범죄로 분리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러 통합되는 양식이 성경구조의 핵심이다. 문학 비평가는 이러한 일련의 신앙과정의 전체적 구도를 관찰하고 평가해야 한다. 기독교 시인은 “인간의 삶은 그 마지막 핵심에 있어서 역설이라는 점과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은 바로 모순이며 이 모순 앞에서 개념적인 사고는 좌절에 빠진다.”(볼노브, 1974: 109-117)는 경험적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시인인 이상 “모순이 모순으로 끝나지 않고 보다 높은 초월적 진리로 승화되는 시적 역설의 본질”(오세영, 1989: 183)에도 충실해야 한다. 상호 모순된 존재의 통일적 자기실현은 시인과 신앙인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된 과제이다. ‘신앙발달단계이론’은 시의식의 깊이와 신앙수준의 상관관계를 확인해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준다.

II. 신앙발달이론과 시 의식의 분석

신앙발달이론을 창시한 파울러(J. W. Fowler)는 ‘신앙’을 ‘종교’ 또는 ‘신념’(belief)¹⁾과 구별한다(파울러, 1987: 27, 28). 그는 신앙을,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인간적 관심이면서 동시에 근본적인 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복합적인 힘과 관계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일관성을 발견하는 방법”으로 정의함으로써 특정 종교나 문화적 전통을 넘어서는 폭넓은 관점을 제안하였다. 외래종교인 기독교의 성서를 자신의 시에 수용하여 시의식으로 형상화한 한국시인의 신앙수준을 판단하는 데 이같은 관점은 문화적 특성을 넘어서는 보편적 타당성을 확보해줄 수 있을 것이다.

1) faith(신앙)와 구별되며, 신앙의 지식적인 내용을 강조한다.

파울러는 신앙의 특성 중 ‘상상으로서의 신앙’(파울러, 1987: 58-71)을 강조한다.²⁾ 신앙은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상태를 상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파울러는 신앙이 한 개인의 인생 여정에서 어떻게 발달해 가는지, 단계를 나누어 체계화하였다. 그의 저서 『신앙의 발달단계(Stages of Faith)』에서 각 단계를 구분하는 일곱 가지 요소³⁾를 기준으로 하여 여섯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⁴⁾

파울러는 신앙발달의 여섯 단계에 앞서 0단계를 설정하고 ‘미분화된 신앙’이라 불렀는데, 개념이 미분화된 상태에 있으므로 신앙의 단계로 구분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중요성은 하나님과 관련된 강력한 이미지(前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사실이다. 1단계 ‘직관적-투사적 신앙’은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신앙적인 분위기와 모범과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신앙이 형성된다. 자아중심적인 태도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인식이나 역할은 아직 생성되지 않고 초보적인 공감을 가지는 정도이다. 상징적 표현이 가능하며, 상상과 감각에 의해 알게 된 것은 후에도 더욱 강하고 지속적인 감정과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이 시기의 상상은 후에 자기 성찰적인 가치평가 및 사고작용에 보다 안정적인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2단계 ‘신화적-문자적 신앙’은 자신의 공동체가 소유한 상징과 신화와 교리들을 자기의 힘으로 받아들이며, 그것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 사회적 인식의 범위는 가족적, 인종적, 종족적, 계층적, 종교적 견지에서 ‘우리과 같은 사람들’로 확대되며, 타인의 관점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경험을 이야기로 구체화하는 능력을 가지면서 자신의 경험에 통일성을 찾는다. 그러나 상징은 일차원적이며, 의미에 있어서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 이야기들에 포함된 모순들을 인식하게 되고, 그 의미를 반성할 수 있게 되면서 다음 단계로 전이된다.

3단계 ‘종합적-인습적 신앙’은 자신이 속한 종교전통의 관습적인 신앙을 종합적으로 그러나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단계로서, 파울러는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2) 파울러는 다른 글에서도, “내가 주장하는 상상력은 초월적인 진리의 계시를 인식하고, 이에 반응하기 위한 인간의 사령부적 기관이다.”(파울러, 1980: 48)라고 하여 신앙에서 상상력의 기능을 강조한 적이 있다.

3) 일곱 가지 요소는 ‘논리의 형태’, ‘관점의 취합’, ‘도덕판단의 형태’, ‘사회적 인식의 범위들’, ‘권위의 소재(위치)’, ‘일관된 세계관의 형태’, ‘상징적 기능’ 등으로서, 이들은 각 단계에서 고르지 않게 부분적으로 일어난다.

4) 이하에서, 여섯 단계 이론의 요점을, 파울러의 저서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자들(사미자, 2001; 김신옥, 1999; 장종철, 1982)의 논의를 참조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가장 많다고 한다. 의미나 가치, 신념들이 개인적인 철학이나 내성적인 과정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며, 비분석적이고 무언적인(tacit) 체계에 의존한다. 다소 간의 일관성이 있는 ‘이념’을 소유하고 있지만 독립적인 전망을 구성하고 유지할 만큼 그 정체성과 자율적 판단을 확실하게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순응주의’의 단계이다. 다양한 수준에서 상징을 받아들이고 상징 속에 함축된 의미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비판적 이해에는 이르지 못한다. 이 시기 신앙의 힘은, 새롭게 얻어진 정체성과 신앙에 대한 자신감과 궁극적 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통하여 과거와 미래를 통합하는 ‘개인적 신화의 형성’이다. 아직 스스로 설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확고한 신앙의 정체성을 소유하지는 못한 상태이며, 어떤 이들에게는 영구적인 단계가 되는 경우도 있다. 다음 단계로의 이동은, 의심없이 신성시되고 꼭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던 가치들이 심각한 충돌을 맞게 될 때 그러한 현실에 대한 반성이나 비판이 이루어지면서 진행된다.

4단계 ‘개별적-반성적 신앙’은 3단계의 순응적이고 의존적인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책임 있는 신앙의 수준이다.⁵⁾ 이 단계 신앙인은 의존적인 신앙에 갈등을 느끼면서 자신의 내적인 권위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반성적이며 이분법적(either/or)인 사고의 틀 속에서 선택의 문제로 깊은 자아의 갈등을 느끼는 시기이다. 즉, 개인/공동체, 주관/객관, 자기실현/현신, 상대성/절대성 사이의 긴장 사이에서 평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힘든 투쟁을 겪는다. 자신의 관점이 정당한 것인지 입증해야 함을 깨달아 자신의 생각과 견해에 책임을 지니고, 자발적으로 선택 결정하고, 정체감을 지니려고 한다. 순진하게 이해되던 상징이 개념적으로 해석되어 의미를 찾게 됨으로써 신화성이 추방된다. 아울러 자아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내적인 지속성과 명백한 의미구성을 요구한다.

5단계 ‘결합적 신앙’은 역설적 신앙이라고도 부르는데, 명백한 모순에 내포된 진리와 역설에 민감하며, 정신과 경험 사이에서 반대되는 것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파울러는 30세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신앙의 경지라고 평가한다. 이 단계에서는 역설과 모순 속에서 진리를 보고 생각과 경험에 있어서의 양극을 서로 결합시키려고 노력한다. 독립성의 상실 없이 타인에게 의존할 수 있게 되며⁶⁾, 보다 포괄

5) 파울러는 신앙발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지적하면서, 대부분의 성인들이 이 단계의 신앙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적인 정의와 사랑의 실현을 위하여 자아를 희생하고 현재의 질서의 부분적인 정의를 시정하려는 준비태세까지 도달한다. 역설적인 상상이 일어나면서 자신이나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 소유한 상징들의 가장 강렬한 의미들을 볼 수 있으며 그 의미 안에 머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의미들은 상대적이고 편파적이며 초월적 실재에 대한 자각을 불가피하게 왜곡한다는 것도 인식한다. 이러한 역설적 성격은 존재하는 것들의 포괄적인 공동체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보편적 신앙’의 단계에서는, 현실의 사건보다도 궁극적인 관심과 만남에 초점을 기울이며, 인간은 변화된 존재로서 세상 안에 살면서 초월적인 모습으로 현존한다.⁷⁾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으면서 영원을 체험하도록 하며, 하나님과의 가장 완전한 상태로 연합하도록 한다. 이 단계의 신앙인은 절대적 사랑과 정의의 화육이며, 이들은 모든 존재를 포용하는 신앙으로, 모든 억압, 제약을 풀고 세계를 변형시키고, 통일할 힘에 참여한다는 느낌으로 사는 자들이다.

신앙발달단계 중 네 번째 단계를 매우 중요한 국면으로 본 파울러는, “나는 사람들이 신실한 궁극적 환경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에 자신을 헌신함이 없이, 또한 인간 공동체에서 그들의 삶을 형성함(그 공동체와 보완적으로 살기 위하여)이 없이는 개별적-반성적 단계를 넘어서는 신앙의 단계로 발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4단계는 어떠한 종교적 전통에 속해 있든, 자신의 개별적 정체성을 획득하는 단계로서 한국 기독교 시인들의 경우에도 이 단계의 진입 여부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신앙관의 발달적 측면에서 윤동주의 시를 논한 기존 연구로는 곽동훈과 손종호를 들 수 있다. 곽동훈(곽동훈, 1979: 57-83)은 ‘마음’과 ‘의식’을 구분하여⁸⁾, 10대 소년시절의 시를 예로 들면서 의식의 미분화 상태에서 믿음을 주도한 것은 ‘마음’이었으며, 신을 ‘구원의 주체’로 보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년기에 접어들어 의식이 분화되고 성숙하자, 신

6) 3단계의 신앙이 의존적(dependent)이라면, 4단계는 자아의존(self-dependent)적이며, 5단계의 신앙은 상호의존적 단계(interdependent stage)라고 평가할 수 있다(장종철, 1982: 388).

7) 파울러는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보편화된 신앙을 구현하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긴박함’에 이끌렸다고 본다. 마하트마 간디, 테레사 수녀, 마틴 루터 킹 목사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8) “마음을 전인적인 것에 관련되는 전체적인 무엇, 의식은 마음속에서 분석, 비판, 감독하는 힘을 지닌 부분적인 무엇”으로 규정한 다음, ‘의식’은 인간의 삶의 과정 속에서 발전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는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며, 언제나 그 자체를 포용하는 보다 큰 그릇인 ‘마음’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은 ‘심판의 주체’로 다가왔으며, 신과의 거리를 의식하고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하여 자신을 비판하였고, 이 비판이 깊어진 끝에 신을 ‘심판의 주체’로써 뿐만 아니라 ‘구원의 주체’로, ‘의식’으로도 확인하는 경지에 도달하였다고 하면서 『서시』를 예로 들었다.

손중호(손중호, 2006: 279-304)는 운동주 시에 나타난 기독교의식의 구명은 종교성보다는 영성의 관점에서 접근한 필요가 있다면서, 인간이 지식을 획득하는 세 가지 양식, 즉 육신의 눈(eye of flesh), 마음의 눈(eye of reason), 관조의 눈(eye of contemplation)의 개념에 의거, 그의 신앙적 체험이 어떠한 영성의 발전단계를 이루었는지를 살폈다. 운동주의 시를 ‘마음의 눈’과 ‘관조의 눈’으로 쓴 두 부류로 나누고, 그 사이에 신앙에 대한 회의와 비극적인 이원성이 나타나는 시들을 또 한 부류로 설정하여, 그의 순수한 영성과 통찰적 비전이 담긴 『서시』에 이르러 비로소 균형 잡힌 ‘관조의 눈’을 얻었다고 하였다.

신과의 분리 후 재통합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과정은 시인들의 시 의식의 성숙과정과 닮아 있다. 기독교적 구원이나 시의식 성장의 관건은 모순을 자각하고 역설을 극복하는 정신적 능력 여부에 달려 있다. ‘의식’의 성장과정이나 영성의 발전단계의 관점에서 고찰한 두 논자는 이 점을 놓치지 않고 주목할 만한 결론을 내렸다. 광동훈과 손중호는 운동주 시인이 『서시』에 이르러 존재의 본질적 모순을 해소하고 의식의 균형을 얻은 경지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두 논자는 마음과 구분되는 의식이나 종교성보다는 영성에 초점을 두고 신앙시인의 시 의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분석에서는 기독교의 진리내용과 시의 의미를 동일시하는 관점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기독교의 교리나 신앙내용은 시인의 영적인 체험으로 육화되어 시적 상상력을 통해 표출된다. 성경은 기독교 교리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으며, 시인은 성경을 원천으로 하는 인유의 수사학을 통해 한 편의 시를 창작한다. 인유의 재문맥화 과정을 통해 성경의 내용은 시작품에서 신앙고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비판적, 풍자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나아가 시와 성경이 각자의 독자성을 상실하지 않고 조화롭게 융화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성경을 원천으로 하는 시적 인유의 양상을, 인유의 원천과 시적 표현 사이의 변형 정도와 그 동기를 분석한 다음, 특정 종교의 신앙전통이나 교리(brief)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신앙(faith)의 관점에서 신앙발달 수준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III. 본 론

성경을 원천으로 인용한 윤동주의 시들⁹⁾을 대상으로 파울러의 신앙발달단계이론에 따라 각 단계에 해당 작품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윤동주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머물러 있는 3단계의 ‘종합적-인습적’ 신앙으로 진입하면서 시의식상의 커다란 전환을 가져왔고, 파울러가 신앙발달단계에서 신앙적인 자아정체성이 확립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본 4단계의 ‘개별적-반성적’ 신앙의 단계에 이르러, 다른 기독교시인들과는 변별되는 신앙의 깊이와 시의식의 독자성을 보여주었다. 일본에서 쓴 시들에서는 성숙한 성인이 아니면 도달할 수 없는 ‘역설적 신앙’으로의 단계전이과정을 볼 수 있다. 성경의 진리가 시로써 재문맥화되는 양상과 시의식의 변모과정을 살펴 신앙발달단계의 관점에서 평가해 볼 것이다.

1. 직관적-투사적 신앙

윤동주는 1934년 12월 24일, 10대 후반(17세)의 나이로 성탄절 전야에 두 편의 시 「초한대」와 「삶과 죽음」을 썼다. 용정의 은진중학교 재학시절로, 급우들과 교내 문예지를 만드는 등 문학 소년으로 활동하던 때이다. 이들 시를 통해 그의 신앙 이해의 성격과 향후 시적 상상력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성서 인용이 두드러진 작품은 「초한대」이다.

초한대 —— / 내방에 품긴 향내를 맞는다. //

光明的 祭壇이 문히지기 전 / 나는 깨끗한 祭物을 보았다. //

염소의 갈비뼈같은 그의 몸, / 그의 生命인 心志까지

白玉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 불살라 버린다. //

그리고도 책상머리에 아롱거리며 / 선녀처럼 초소불은 춤을 춘다. //

매를 본 꿩이 도망가듯이 / 暗黒이 창구멍으로 도망한 //

나의 방에 품긴 / 祭物의 偉대한 香내를 맛보노라.

「초한대」 전문

9) 『사진판 윤동주 자필 시고전집』에 수록된 122편(산문 3편 제외) 중 성경을 인용하기 어려운 동요·동시 33편을 제외한 89편 중에서 성경을 원천으로 인용한 시들은 모두 13편으로, 약 15%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시는 그의 시 의식 변모과정에서 중요한 국면을 보이는 작품들이므로 그의 시세계에는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인용되고 있는 성경의 전거는, ‘초 한 대’로 비유된 제물(祭物)을 비롯하여, ‘제단(祭壇)’, ‘불사름’, ‘향내’, ‘염소’ 등 제사(번제)와 관련된 단어들이다. 그밖에도 ‘광명(光明)’과 ‘암흑(暗黑)’이라는 기독교의 근본 상징이 쓰였다. 제단에 놓인 ‘초’는 기독교 전통에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F. 레스트, 1982: 84), 자신을 불살라 빛을 밝히고 냄새를 풍기는 ‘초’의 사물적 속성에 예수의 희생적 이미지를 결부시켰다. ‘방에 품긴 향내’, ‘제물의 위대한 향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¹⁰⁾(가스펠 서브, 2005: 1289)라는 성경의 관용구(idiom)¹¹⁾를 반영한 것이다. “염소의 갈비뼈같은 그의 몸”, “백옥(白玉)같은 눈물과 피”, “선녀처럼 초·불은 춤을 춘다.”, “매를 본 꿩이 도망가듯이” 등, ‘~같은’, ‘~처럼’, ‘~듯이’의 조사를 이용한 직유법을 주로 구사하였는데, 원관념의 의미에 변용이 일어나지 않는 신앙고백적 인유라 할 수 있다. 여기서의 직유는 상상보다는 연상작용에 가깝다.

‘춧농’(자신의 경험) → ‘염소의 갈비뼈’(구약) → ‘피흘린 예수의 몸’(신약)으로의 연상은 인유의 원천에 대한 시인의 이해가 신구약을 아우르고 있고, ‘매를 보고 도망가는 꿩’의 동물비유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성경의 지식이 이미 상식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춧농이 내려 앉은 거친 몸의 형태를 ‘염소의 갈비뼈’에 비유한다든가, 초에 꽃혀 있는 사물인 ‘심지’라는 단어를 한자 개념어 ‘心志’(마음에 품은 의지)로 표기하여 자연스럽게 비유적인 표현 효과를 낸 것은 문학 소년다운 재기어린 표현법이라 할 수 있다. 성경의 진리를 자기화하는 시적 변형의 일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비유를 비롯한 문학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원천에 대한 이해는 관념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깨끗한 제물(祭物)’, ‘위대(偉大)한 향(香)’ 등, 제물과 향을 수식하는 말들은 관념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위대한’이라는 관념어는, 『삶과 죽음』의 마지막 연 “죽음의 勝利者 偉人들”이라는 표현에서도 볼 수 있다. 여기서 ‘위인들’은 ‘세상 사람’과 대조적인 인물들이다. 초기시에 나타나는 관념성은 세계를 성과 속,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파악하여 성스럽고 선한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으로 우리 편이라는 편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10)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레 1:9)

11) 앞으로, 성경에 나타난 주요 관용구는 『성경 관용어 사전』(가스펠 서브 기획편집, 생명의 말씀사, 2005)을 주로 참조하고, 작은 따옴표로 인용한다. 시에 수용된 관련 성경구절들은 이 사전의 예시 구절을 빌려오거나 필자의 별도 확인을 통해 큰따옴표로 본문이나 각주에 직접 제시한다.

이러한 의식은 파울리의 신앙발달 단계의 측면에서 보면, 1단계 ‘직관적-투사적 신앙’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의 신앙인은, “그들이 속한 문화에 의하여 주어진 이야기들과 이미지들의 단편들을 하나님 및 거룩한 것을 다루는 그들 자신의 중요한 연상들에 결합”시키는(파울리, 1987: 209, 210) 특성을 보인다. 예수의 희생 이미지는 스스로 파악한 것이기보다는 기독교적인 가정의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전승된 ‘주어진 이야기’에 의존한 것이며, ‘거룩한 것에 대한 자신의 연상’에 의거하여 시로써 표상된 것이다.

1단계 신앙의 힘은, 이 시기 상상과 감각에 의해 알게 된 것들이 후에도 더욱 강하고 지속적인 감정과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데 있다. 이 시의 핵심 소재인 ‘번제’는 제물 전체를 불살라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레 1:9, 13), 이는 창자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실 그리스도의 향기롭고 온전한 희생(갈 1:4, 엡 5:2) 및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온전한 헌신(롬 12:1)을 상징한다(빅라이프 성경, 1996: 147). 이 시를 쓰면서 ‘성도들의 온전한 헌신’을 자신의 사명으로 시인이 의식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첫 작품에서부터 죄인 구원을 위한 희생을 시의 주제로 삼은 점은 시사적이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것’은 성경의 전체 주제이고, 운동주의 시세계 전체는 이 주제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2. 신화적-문자적 신앙

운동주는 연희전문 입학 전후, 20대에 들어서면서, 성서의 사건 이야기를 모티프로 한 두 편의 시를 썼다. 입학 전 진로에 대한 고민과 입학 후 새로운 환경에서의 경험들은 그의 시의식에 변모를 가져온다. 신앙의 발달단계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공동체가 소유한 상징과 신화와 교리들을 자기의 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단계와 일치한다.

번개, 뇌성, 왁자지근 두다려 / 머—ㄴ 都會地에 落雷가 있어만 싶다.//
 벼루짱 얹어논 하늘로 / 살같은 비가 살처럼 쏘아진다. //
 손바닥만한 나의 庭園이 / 마음같이 흐린 湖水되길 일수다. //
 바람이 팽이처럼 돈다. / 나무가 머리를 이루 잡지 못한다. //
 내 敬虔한 마음을 모서드려 / 노아때 하늘을 한 모금 마시다.

『소낙비』(1937.8.9.) 전문

시 전체가 노아홍수 사건을 모티프로 쓰여졌다. 1연 1행의 상황은 노아 홍수 때의 광경을 재현하고 있다. 성경에서 ‘번개’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나 원수들을 흡수할 때 흔히 등장하며, 2연 2행의 표현처럼 화살처럼 내리는 비를 동반하기도 한다.¹²⁾ 1연 2행의 ‘도회지에 떨어지는 낙뢰’ 이미지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린다’는 성경 관용어구의 변형으로 보인다. ‘경건’의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며 구원을 바라는 마음을 뜻한다.¹³⁾ 아울러 곤경의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자들의 마음¹⁴⁾이기도 하다. ‘하늘을 마신다’는 독특한 표현도 ‘~의 물을 마시다’는 성경의 관용어구를 반영한 것으로, 성경에서는 ‘~에게서 도움을 받다’, ‘~로부터 힘을 얻다’는 뜻으로 쓰인다(가스펠서브, 417). 성경의 홍수심판이 죄인들은 물속에서 죽고 의인들은 살았다는 점에서 물세례의 예표가 된다는 사실(벧전 3:19-21)을 참조하면, 시적 화자가 노아의 하늘을 마시는 행위는 구원을 바라는 경건한 자의 마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 시대의 현실적 고통을 노아홍수에 빗대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식하고, 화자 자신은 죄를 씻고 경건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 그의 현실적 경험이 확대되면서 성숙, 선악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현실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성숙된 의식을 보여준다.

말에 터분한 것을 다 빼어 버리고 / 黃昏이 湖水 우로 걸어오듯이
나도 삼분삼분 걸어 보리이까? //

내사 이 湖水가로 / 부르는 이 없이 / 불리워 온 것은 / 참말 異蹟이외다. //

오늘 따라 / 戀情, 自惚, 猜忌, 이것들이 / 작고 金메달처럼 만져 지는구려 //

하나, 내 모든 것을 餘念 없이 / 물결에 써서 보내려니
당신은 湖面으로 나를 불러내소서.

『異蹟』(1938.6.19.) 전문

12)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흡수하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삼하 22:15, 시 18:14),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흡수하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시 144:6),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 같이 쏘아내실 것이며”(스 9:14)

13)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며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시 86:2)

14)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시 32:6)

이 시는 연희전문에 입학한 해 6월에 쓴 것으로, 물위를 걸은 예수의 이적 이야기(마 14:22-36)를 차용하였다. 2연에 등장하는 호수는 성경의 갈릴리 호수의 이미지와 중첩된다. 세상에 발 딛고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발에 묻게 되는 온갖 세속적인 더러움을 ‘터분한 것’이라고 하였다. 화자는 예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명한 대로, 세속적인 데로 향하는 마음과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버릴 터이니 베드로에게 명한 것처럼 자신을 불러 달라고 한다.¹⁵⁾ 예수가 주님이심을 확인하러 물 위를 걸어 보고자 한 베드로(마 14:28-29)와 달리, 물 위를 걸을 수 있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화하여 경건한 마음을 갖춘 다음 예수의 부름을 기다린다.

예수가 물 위로 걸어간 것과 달리 여기서는 ‘黃昏’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으로 변형되어 있다. ‘황혼’은 어둠을 몰고 오는 부정적 이미지가 아니라 ‘사뿐사뿐’ 가벼운 움직임의 주체로 제시되었다. 성경의 소재를 시인의 상상력으로 변형시킨 것인데, 시적 의미가 분명치는 않다.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고 휴식의 시간으로 바뀌는 시간 이미지라는 점에서 지상적 삶의 무거운 짐을 벗고 예수에게서 쉼을 얻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독자로서의 추측일 뿐이다.

성경의 원천 소재를 빌려오되, 자신의 문제로 재문맥화하여 큰 변형을 보였다. 제자들에게 나타나 물 위를 걸은 예수의 이적은, 그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가 된다는 것(계 17:14)과 세상 풍파로 인한 시험과 환난에 빠진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롬 8:26)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는데, 시에서는 이같은 신앙의 고백보다는 예수의 부르심과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허락되기를 기다리는 정황과 유사하다.

성경의 사건을 재문맥화하는 인유적 상상력은, 경험을 이야기로 구체화하는 능력으로서, 이는 자신의 경험에 통일성을 찾고자 하는 ‘신화적-문자적 신앙’ 단계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이다. 이 단계의 신앙인은 공동체(기독교)의 신념이나 상징을 자신의 이야기로써 취하고, 신앙의 경험들에 일관성을 가지려고 하는데¹⁶⁾, 아직 이야기들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성을 느끼지 못하고, 궁극적인 힘과 일치를 이루려는 태도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15) 사진판 원본에는 마지막 행 다음에 “걸으라! 命令하소서!”라고 썼다가 지웠다.

16) 윤동주에게서는 죄의 인식과 정화의식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3. 종합적-인습적 신앙

(1) '문자적 신앙'의 극복

『팔복』을 쓴 1940년은 연희전문 졸업을 1년 앞둔 해로, 이 해에 윤동주는 다양한 경험을 한다. 교우관계가 깊어지고 영어성서반에서 성경공부를 하고, 여름방학 때 친척들에게 『시전』을 배우고, 고전 음악을 듣기도 하고, 여행을 하기도 하였다. 이 무렵 릴케, 발레리, 지드 같은 작가들의 작품을 탐독하는 한편, 프랑스어를 자습하기도 하였다. 삶에 대한 교양이 두터워지고, 현실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성경의 진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시 『팔복』을 쓰고 있어서 주목을 끈다.

슬퍼 하는자는 복이 있나니 / 슬퍼 하는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 하는자는 복이 있나니 / 슬퍼 하는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 하는자는 복이 있나니 / 슬퍼 하는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 하는자는 복이 있나니 / 슬퍼 하는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永遠히 슬플 것이오.

『八福 -마태福音 五章 3~12-』(1940.12.3.) 전문

이 시의 인유형식은 “전혀 새로운 문맥으로 변용시킨 나머지 제목만 인용했을 뿐 모방적 인유의 요소가 없는”(김준오, 1982: 233) 유형에 해당된다. 제목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비판의 동기를 보여주는 것이고, 모방적 요소를 배제한 것은 원전의 의미나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의식상황에 놓여 있음을 뜻한다. 신앙단계의 전이가 일어나는 징표로 볼 수 있다.

이 시는 예수의 산상수훈에서 언급되고 있는 여덟 가지 복을 표면적으로는 부정하고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 5:4)라는 ‘위로 받음’의 복을 부정한 것이다. 이 시는 『慰勞』가 씌어진 종이의 뒷면에 쓴 작품으로, 처음에는 1연 8행과 2연 1행 사이에 있던 “저희가 슬플 것이오. /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것이오.”라고 썼다가 모두 삭제하고, 2연 1행의 “저희가 永遠히 슬플 것이오”로 바꾸면서, 원래 ‘오래’라고 썼던 부사도 ‘永遠히’ 바꾸었다. ‘위로’라는 말을 거부하고, ‘영원히’라는 말로 슬픔을 절대화한 것이다. ‘위로’와 ‘슬픔’ 사이에서 심

각한 고민을 한 흔적을 볼 수 있다. 성경적 의미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몫이며,¹⁷⁾ 신앙인은 그가 마련하는 위로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위로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보다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재의 이곳에 초점이 놓여 있다. 자신은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¹⁸⁾, 예수의 위로의 시간까지 건널 수밖에 없는 절망의 고통을 부각시킨 것이다. 성경에서 가장 극심한 슬픔의 표현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가는 것’¹⁹⁾인데, 죽을 때까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극심한 심적 고통을 차용한 셈이다.

현실의 고통 때문에 신앙적 경험의 일관성을 지탱해주는 ‘이야기’에 함축되어 있는 ‘상충’ 또는 ‘모순’(파울러, 1987: 242)을 인식했다는 징표이다. 성경의 진리에 따르지 않고 위로보다 영원한 슬픔을 의식하는 태도는 ‘문자적 신앙’을 극복하는 진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시를 두고서, 불신앙 또는 신앙의 회의로 규정하거나, “그의 신앙과 마찬가지로 신을 찬양하는 기도”(송우혜, 1988: 223)였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신앙 발달단계의 견지에서 보면 주관적이거나 소박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특정종교의 신앙체계, 즉 기독교의 신념(brief)에 국한해서 볼 때에는 시적 화자가 갈등을 일으킨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그의 신앙(faith)체계에 파탄이 온 것은 아니다. 모순을 못 느끼는 단계의 ‘문자적 신앙’을 탈각하는 진통일 뿐이다.

(2) 인습적 신앙의 과정

‘종합적-인습적 신앙’은 자신이 속한 종교 전통의 관습적 신앙을 종합적으로 그러나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단계로서, 이에 따라 자신과 타인, 세계에 관하여 이해하고 자신의 삶의 과거와 미래를 고백하는 신앙이다. 기독교 종교의 전통적 신앙관에 따르면, 이 세계는 신의 우주 창조와 세계의 종말이라는, 시작과 끝이 있는 신적인 섭리의 역사에 따라 움직이며, 인간은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 지상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로 이해된다. 연희전문 졸업반인 1941년 5월에는 성경을 수용한 시편들을 집중적으로 썼는데, 기독교적 세계관(창조와 종말), 기독교 신앙인의 삶의 자세

17) “여러분은 주께서 마련하신 위로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 주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 주실 것입니다. 예수가 곧 그분이십니다.”(공동번역본, 행 3:20)

18) “무수한 고생 끝에 때를 잃고 病을 얻은 이 사나이를 慰勞할 말이..... 없다.”(『慰勞』에서)

19)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창 37:35)

에 대한 윤동주의 시적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① 피조물의 신앙

『팔복』을 쓴 이듬해 5월, 윤동주는 창조 이전부터 마련된 신의 예정과, 원죄를 짊어진 피조물의 삶을 수락하는 내용의 시, 『太初의 아침』과 『또 太初의 아침』을 쓰면서, 삶의 자세에 전환을 가져온다. 인간의 사고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우주창조과정 속에 내재된 신의 섭리에 순응함으로써 인습적 신앙인의 길로 들어선다. 시 『팔복』의 진통을 겪은 후 인간의 합리적 사고에 배치되는 신앙체계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한 것이다.

봄날 아침도 아니고 / 여름, 가을, 겨울, / 그런날 아침도 아닌 아침에 //
 뱀—간 꽃이 피어났네, / 해나빛이 푸른데, //
 그 前날 밤에 / 그 前날 밤에 / 모든 것이 마련되었네, //
 사랑은 뱀과 함께 / 毒은 어린 꽃과 함께

『太初의 아침』 전문

‘태초’는 시간을 초월한 절대적인 시점을 말한다. 시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의 구분이나 순환이 없는 시간으로 표현하였다.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섭리는 마련되어 있었고, 인간의 삶은 서로 모순된 것들의 비극적 결합으로 예정되어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다.²⁰⁾ 성경의 인용은 사탄을 상징하는 ‘뱀’과 그 ‘독’²¹⁾에 국한되고, 시적 정황은 시인의 상상력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뱀’과 ‘독’을 각각 ‘사랑’과 ‘어린 꽃’과 결부시켜, 인간의 사랑은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면 신과 멀어질 수 있으며, ‘어린 꽃’으로 상징되는 생명은 푸른 햇빛과는 무관하게 뱀의 치명적인 ‘독’을 머금은 채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시의 화자는 피조물의 모순성과 비극성을 받아들이고 있다. 자신이 속한 기독교의 전통적 신앙관을 받아들인 것이다. 모순처럼 보이는 진리를 시적 화자는 ‘~났네’, ‘~되었네’라는 깨달음과 감탄이

20) 김홍규는 이 작품을 “이 세계를 구성하는 제발 갈등과 대립의 상징적 표현”으로 해석하면서 윤동주의 종교적 회의기에 씌어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는데, 신앙발달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그 반대적 양상으로 볼 수 있다.

21) 성경에서 ‘독’은 일반적으로 뱀의 독을 말한다.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의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신 32:24)” 여기서 ‘티끌에 기는 것’은 뱀을 가리킨다(창 3:14).

섞인 어조로 고백하였지만, 창조 섭리의 모순된 의미를 객관화하지는 못하고 있다. 기독교 전통신앙에 기대어 무언적(無言的, tacit) 체계²²⁾ 속에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비분석적, 관습적 신앙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하얗게 눈이 덮이었고 / 電信柱가 잉잉 울어 /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다. //

무슨 啓示일까. //

빨리 / 봄이 오면 / 罪를 짓고 / 눈이 / 밝아 //

이브가 解産하는 수고를 다하면

無花果 잎사귀로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 나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겠다.

『또 태초의 아침』(1941.5.31.) 전문

이 시의 화자는 죄를 짓고, 눈이 밝아 땀을 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죄를 짓는다’는 말은 이브의 유혹, 사랑의 독을 받아들이는 행위이며 낙원에서의 추방을 자처한다. 이는 피조물의 원죄성을 인정하고 땀을 흘리는 고통의 대가를 치르겠다는 능동적 의지의 표현이다. 앞의 시와 더불어 시적 화자는 ‘관습적’인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있다. 시의 화자에게 ‘태초의 아침’이 시작된 것이다. 성경의 문자적 진리를 자기의 삶으로 육화하여 전통적인 신앙관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 이런 신앙단계의 전환은 2연에 따르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이다.²³⁾

『태초의 아침』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였다면, 여기서는 신의 계시에 응답하고 새로운 행동의지를 갖게 됨으로써, 비로소 종합적-관습적 신앙의 역사가 시작되는, ‘태초’의 순간을 맞이한다. “눈이 밝아~땀을 흘려야겠다.”는 화자의 태도는, “정체성과 신앙에 있어서 자신(自身)이 생성되며, 궁극적인 환경의 이미지를 통하여 자신의 과거와 예상된 미래를 통합하는 개인적 신화의 형성”(파울러, 1987: 278)을 이루는 3단계 신앙의 특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비로소 기독교의 전통 신앙에 입각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과거와 미래를 통합하는 삶의 전망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²⁴⁾

22) ‘무언적 체계’에서는 의미나 가치가 상징적으로 중재되고 우주적인 지지를 받는 느낌으로 다가온다.

23) 성경에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속한 구원의 신비와 거룩한 진리, 또는 당신의 뜻과 섭리를 사람들에게 친히 나타내보여 주시는 거룩한 행위를 가리킨다(고후 21:1). 하나님과 관련된 신적 지식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다.

24) 손종호는, “그의 실제적 경험의 영역이 간도와 평양을 벗어나 서울로 확대되었을 때 초경험적인 이성의 세계로 자리 잡았던 그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신앙의식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고 결국 위기

② 지상에서 신앙인의 삶

기독교 신앙인은 현세에 가치를 두지 않고, 세상 종말 때, 예수 재림의 날에 구원받는 성도로 살아간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재림을 대망하는 삶이다. 성경을 인용한 운동주의 시에는 이러한 삶의 자세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太陽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 눈 감고 가거라. //
 가진 바 씨앗을 / 뿌리면서 가거라. //
 발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 감았던 눈을 왓작 떠라.

『눈 감고 간다』(1941.5.31.) 전문

이 시에 나타난 성경적 원천은 ‘씨앗을 부리는 일’과 ‘발부리에 채이는 돌’이다. 성경에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²⁵⁾을 상징한다. 따라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1연에 의하면, 이들은 ‘태양을 사모하고, 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성경에서 ‘태양’은 세상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표현할 때 언급되고(마 5:45), ‘별’은 예수를 지칭할 때에 ‘광명한 새벽 별’(요계 22:16)로 표현되며, 새 세계의 도래를 예시하는 큰 빛을 뜻한다. 여기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를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종합적-관습적’인 신앙인들 전체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시의 화자가 강조하는 내용은 마지막 연에서 하는 말에 들어 있다. ‘발부리에 돌이 채일 때 와작 눈을 뜨라는 것이다.’²⁶⁾ ‘발부리에 채이는 돌’은 ‘신앙의 걸림돌로서의 그리스도’의 비유를 차용해온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는 불신앙자들에게 여호와와는 구원이 아닌 멸망케 하는 걸림돌이 된다. 시의 화자가 명령하는 말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한 예수의 말을 대신 전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분부는 지상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화자에게도 해당하는 말일 것이며, 결국은

를 맞게 된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자리가 바로 ‘태초의 아침’이었던 셈이다.”(손종호, 2006: 299)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고 대부분의 논자들이 말하는 ‘신앙의 위기, 회의’, ‘위기의 극복, 신앙의 회복’ 등은 순간적인 개념일 뿐이며, 신앙발달의 과정 또는 단계 전환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5)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막 4:14)

26) 류양선은 이 부분을 강조하여, 이 시를 “어둠의 시대에 맞서 시인 스스로 신앙의 실존에 대해 경계하는 마음을 표현한 작품”(류양선, 2011: 152)으로 보았다.

자기 다짐의 말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 시는 세상의 종말, 예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신앙인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눈 감고 간다』에서처럼, 시적 화자는 명령조로 말한다.

다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 검은 옷을 입히시오. //
 다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 흰 옷을 입히시오. //
 그리고 한 寢臺에 / 가즈런이 잠을 재우시오. //
 다들 울거들랑 / 젖을 먹이시오. //
 이제 새벽이 오면 / 나팔소리 들려 올 게외다.

『새벽이 올 때까지』(1941.5.) 전문

이 시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고전 15:50-51)라는 성경의 예언을 주제화하였다. 철저히 성경의 관점에서 씌어진 시이기 때문에 성경의 원천적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일반인들에게는 읽히기 어려운 시이다. 옷을 입히다, 잠을 재우다. 젖을 먹이다 등의 서술어는 어린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들이다. 이런 표현을 이해하자면, 지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영적인 측면에서는 꾸준한 양육이 필요한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성경의 지식이 필요하다.

성경에서 ‘옷을 입히다’는 표현²⁷⁾은 예수가 신랑으로 재림할 때 신부의 단장을 비유적으로 묘사할 때 쓰였다. 그리고 ‘흰 옷’²⁸⁾은 그리스도의 속죄 피로 칭의(justification)되어 무흠, 승리, 영생 등의 상태로 된 것을 상징한다(툼슨, 1996: 402). ‘잠’이나 ‘잠들다’는 단어는 ‘육신의 죽음’에 대한 성경의 비유적 표현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가스펠서브, 2005: 1057)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를 뜻한다. 어린 아이의 젖과 관련되는 성경의 관용구로는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가스펠서브, 2005: 28)를 들 수 있는데, 갓난아이에게 모유가

27)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겹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사 61:10)

28)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계 3:4) 성경에서 옷의 색깔과 관련하여는 ‘흰 옷’과 ‘붉은 빛’, ‘자색 빛’ 옷이 등장하지만, ‘검은 옷’은 등장하지 않는다.

필요하듯,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한다는 뜻이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거짓 없이 순수하고, 심령을 살찌게 하는 데 적합한 영혼의 젖’²⁹⁾ 곧 ‘생명의 말씀’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면, 이 시의 명령투의 말들은, 지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영적으로 거듭나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양육하여 예수의 재림을 대망하라는 권고의 메시지가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마지막 연에 표현된 대로, 이제 ‘새벽’이 오고, ‘나팔소리’가 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나팔소리’는 성경에서 예수 재림을 알리는 소리³⁰⁾로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죽은 이들은 순식간에 불멸의 몸으로 살아나고(고전 15:52),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주와 함께 영생에 들어선다(살전 4:17).

이처럼 이 시는 종말의 시간에 대한 성경적 소망 가운데 씌여졌다. 시의 화자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소유한 건강한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는 인습적 신앙의 기본 덕목에 해당한다. 종합적-인습적 단계의 신앙을 보여주는 운동주의 시들에서는 인유의 원천으로서 성경의 소재들은 큰 변형 없이 인용되며, 시의 근간을 이룬다. 인유의 원천과 시적 재문맥화 사이에는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한다. 이는 “정체성과 신앙에 있어서 자신이 생성되며, 궁극적 환경의 이미지들을 통하여 자신의 과거와 예상되는 미래를 통합하는 신화의 형성”(파울러, 1987: 278)이라는 3단계 신앙의 힘 때문이다.

4. 개별적-반성적 신앙

‘개별적-반성적 신앙’은 파울러 발달단계이론의 4단계로서, 3단계의 순응적이고 의존적이던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책임 있는 신앙’의 수준에 해당한다. 파울러는 신앙발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인데, 대부분의 성인들이 이 단계의 신앙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29)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벧전 2:2)

30)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마 24:31)

(1) 개별적 신앙으로의 전이

「십자가」는 3단계 신앙의 특성을 보여주는 「또 태초의 아침」, 「눈감고 간다」, 「새벽이 올 때까지」와 같은 달에 쓴 시인데, 이들 시와는 다른 의식의 면모를 보인다.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는, 같은 시기에서도 신앙의 단계적 특성들은 부분적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새로운 신앙의 힘은 이전의 힘의 패턴을 부정하거나 대체함이 없이 그 패턴들에 추가되고 그 패턴들의 맥락들을 재설정한다.”(파울러, 1987: 427)는 파울러의 설명에 부합되는 현상이다.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
 피로웠던 사나이 / 幸福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 十字架가 許諾된다면 //
 모가지를 드리우고 /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十字架」(1941.5.31.) 후반부(3~5연)

이 시의 성경적 전거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가스펠서브, 2005: 1253)는 주제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는 자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화자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이유는, ‘쫓아오던 햇빛’이 ‘십자가’에 걸려 이 지상이 어두워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생각은 정치적 현실의 암울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신과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암흑의 세력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적 자아의 현실인식은 ‘빛’의 회복을 위해 자신을 죽음에까지 낮추는 헌신적인 실천의지를 동반하고 있다. 동시에 십자가를 졌던 예수 그리스도와 시적 화자 사이에는 올라갈 수 없는 ‘교회당의 꼭대기’의 높이만큼이나 존재론적 격차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의 아들이며, 유한한 존재이면서 영원한 존재이며, 죽음이면서 동시에 부활이며, 죄의 대속자이면서 구원자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고 다시 부활했을 때 그는 그러한 모순을 초월한 역설적 존재로 현현되었다. ‘~처럼’이라는 조사를 별도의 행으로 강조하여 그와 동일한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하지만, 시의 화자는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싶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겸허한 인식으로 하나

님의 허락을 기다린다.

십자가의 성경적 메시지는 화해와 평화이다.³¹⁾ 십자가가 허락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한 것이고, 조용히 피를 흘림으로써 지상과 천상, 유한과 영원, 인간과 신 사이의 모순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일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여,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 신앙발달단계상 4단계의 ‘책임있는 신앙’의 수준에서 가질 수 있는 신앙인의 자세이다. 십자가를 지겠다는 마음은 “일차적 관심으로서의 자기 성취 또는 자기 실현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섬김과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 사이의 긴장된 경험”(파울러, 1987: 292)에서 비롯된 것이다.

(2) ‘책임있는 신앙’의 난관

『십자가』는 『바람이 불어』를 쓴 이틀 후에 쓰여진 작품이다. 십자가 지는 일을 마음을 모았던 시적 화자는 ‘괴로움’의 문제에 부딪친다. 괴로움의 직접적인 토로가 아니라 괴로움의 ‘이유’에 대해 스스로 심각한 질문을 던진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
바람이 부는데 / 내 괴로움에는 理由가 없다. //
내 괴로움에는 理由가 없을가, //
단 한女子를 사랑한 일도 없다. / 時代를 슬퍼한 일도 없다. //
바람이 작고 부는데 / 내발이 반석우에 섰다. //
강물이 작고 흐르는데 / 내발이 언덕우에 섰다.

『바람이 불어』(1941.6.2.) 전문

이 시는 성경적 원천을 정밀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의 난해시가 되어버린다. 성경에서 ‘바람’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 시와 관련된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부는 바람’(가스펠서브, 2001: 439)이다. ‘임의로 부는 바람’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신비한 사역을 설명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된다.³²⁾

31) “그리스도를 내세워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당신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써 평화를 이룩하셨습니다.”(공동번역본, 골 1:20)

32) “Only God’s Spirit gives new life. The Spirit is like the wind that blows wherever it wants to. You can hear the wind, but you don’t know where it comes from or where it is going.”(CEV,

“어둔 房은 宇宙로 通하고 /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또다른 故郷』 2 연)는 구절의 ‘바람’처럼 초자연적인 상징적 바람이다. ‘반석’과 ‘강물’의 상징적 의미는 파악이 쉽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성경의 관용적 표현과는 관련성이 적어 보인다.³³⁾ ‘반석’과 ‘강물’이 동시에 등장하는 성경의 표현으로,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 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시 78:16-17)는 구절을 참조해볼 수 있다. 역경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표현한 말인데, 성경적 원천에 의거해 이 시를 이해해보면 시적 화자는 ‘메마른 땅’에 서서 중보자 성령의 바람에 화답하지 못하고, 은혜의 강물을 바라보기만 하는 괴로움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십자가』에서 자신에게 십자가가 허락되기를 바라는 마음, 헌신을 다짐했던 마음과는 별개로,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할 구체적인 길을 걷지 못하는 자신의 괴로움에 대해 성찰하고 있는 것이다. ‘종소리가 들려오지 않아 서성거리던’ 방향은 넘어섰으나, 실천의 길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통절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화자의 괴로움은, 순응적이고 의존적인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책임 있는 신앙의 수준에 도달한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고뇌이다. 4단계 신앙인으로서는 시인은 자신의 생각과 견해에 책임을 짐으로써 신앙의 정체감을 가지려 한다. “단 한女子를 사랑한 일도 없다.”거나 “時代를 슬퍼한 일도 없다.”는 진술은 사랑의 시(『사랑의 殿堂』)와 슬픔의 시(『팔복』 등)를 써왔던 시인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표면적으로는 모순되는 말이다. ‘한 여자를 사랑하는 일’은 개체로서의 삶에, ‘시대를 슬퍼하는 일’은 공동체적 삶에 속한다. 두 가지 삶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앙적 정체성 속에서 차별 없이 의미를 지녀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는 여태껏 진정한 사랑이나 슬픔을 가지지 못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역시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긴장 속에서 평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힘든 투쟁을 겪는 4단계 신앙인의 고백으로 볼 수 있다.

John 3:8)

33) 이 시의 ‘바람’과 ‘강물’을 ‘역사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시적 자아의 운명적 고난’을 상징한다거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언덕’은 예수가 못 박힌 골고다의 언덕을 상징한다고 보는 견해(노승욱, 2011: 93)는 문학적인 상징 해석에 치우치거나 성격적 의미를 자의적으로 적용한 판단이다.

(3) '결합적 신앙'의 가능성

5단계의 신앙인 '결합적 신앙'은 역설과 모순 속에서 진리를 보고 생각과 경험에 있어서의 양극을 서로 결합시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역설적 신앙'이라고도 한다. 연희 전문을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쓴 시 「쉽게 쓰여진 詩」의 마지막 행에 등장하는 '눈물과 慰安으로 잡는 最初の 握手'는 그의 신앙발달단계가 또 한 번 전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시인이 지금까지 고투해왔던, 합치될 수 없는 '눈물'과 '위안'이 하나로 결합되면서 분리되어 있던 자아의 통합을 이루기 시작한다.

窓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 六疊房은 남의나라 //
 詩人이란 슬픈 天命인줄 알면서도 / 한줄 詩를 적어볼가. //
 땀내와 사랑내 포그니 품긴 / 보내주신 學費封套를 받아 //
 大學 노트를 끼고 / 늙은 教授의 講義를 들으려간다. //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를 /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
 나는 무얼바라 / 나는 다만 홀로 沈澱하는것인가? //
 人生은 살기 어렵다는데 / 詩가 이렇게 쉽게 써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
 六疊房은 남의 나라 / 窓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時代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最後의 나, //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慰安으로 잡는 最初の 握手.

「쉽게 쓰여진 詩」(1942.6.3.) 후반부(7~10연)

이 시는 1~6행까지의 전반부는 시인 자신과 시 쓰는 행위에 대한 메타적 진술이며, 7연 이하부터는 2연에서 말하는 '한 줄 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7연 이하의 시상 전개는 이 시에 앞서 쓰여진 「흐르는 거리」(1942.5.20.)의 시상 전개와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 즉 후반부는 독립된 한 편의 시와 동일한 시상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시 속의 시'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쉽게 쓰여진 詩」의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 →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림' →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악수'로 전개되는 시상구조는 「흐르는 거리」의 '어렵푸시 빛나는 街路燈' → '巨人처럼 찬란히 나타나는 配達夫, 아침과 함께 즐거운 來臨' → '우리 다시 情답게 손목을 잡아보세'의 전개와 같은 구조이다. 어둠 속의 등(燈) 이미지³⁴⁾, 아침의 도래를 기다림, 정겨운 만남의 동일 구조를 볼 수

있다. ‘시대처럼 올 아침’을 표현하면서 『흐르는 거리』에서는 ‘來臨’이라고 표현하였는 바, 그 아침이 다른 아닌 자신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강한 확신, 성경의 예언에 대한 강한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몰아내는 행위는 성경의 주제를 인용한 것으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시 18:28)는 시편의 고백,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준비하고 있어라”(눅 12:35)는 예수의 명령, “이것으로 예언의 말씀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동이 트고 새벽이 떠오를 때까지는 어둠 속을 밝혀 주는 등불을 바라보듯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공동번역, 뎀후 1:19)라는 말년의 베드로의 당부 등에서 볼 수 있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모는 시적 화자의 행동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전망 속에 이같은 성경의 명령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신념은 그 순간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로 하여금 눈물과 위안을 감싸는 악수의 손을 내밀 수 있게 한다.³⁵⁾ 이 악수는 ‘괴로워하던 나’와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사이의 모순을 해소하는 역설적 결합을 뜻한다. 앞 단계의 신앙에서는 ‘자아와 조망의 경계에서 규명(糾明)’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정신과 경험 양극 사이에서 반대되는 것들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파울러, 1987: 318) ‘결합적 신앙’에 따라 이제는 교류(交流)할 수 있게 된다. 감옥에 수감되어 그동안 일본에서 쓴 작품과 일기를 일본어로 번역하고 있었던 윤동주가 어떤 시를 썼는지 더 이상 확인되지 않지만, 개인과 민족을 아우르고, 인간과 신 사이의 모순을 해소하는 확고한 전망을 가졌으리라 짐작해볼 수 있다.³⁶⁾ 파울러에 따르면, 인생의 중반기 이전에는 좀처럼 도달하기 어려운 역설적 신앙인은 “종교적 상징, 신화들의 진가를 알며, 실재의 깊이에 사로잡히는”(파울러, 1987: 318) 단계이다. 윤동주의 시의식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높은 평가의 실재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지점이다.

34) 윤동주는 일본에서 조국의 후배 하숙방에 자주 들러 타고르의 시를 들려주었다. 중학교 후배의 증언에 의하면 “아무래도 잊을 수 없는 것은 나의 아파트에서 윤동주는 여러 번 인도의 타고르의 시를 낭게 낭송해준 일이다. 조선을 ‘아시아의 등불’로 형용한 시였다.”(하야시 시게루, 2000: 376, 377)고 한다. ‘그 등불 한번다시 켜지는 날’에 대해 윤동주는 남다른 공감을 가졌을 것이다.

35)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에 대해 김옥성은 “『팔복』의 ‘슬픔’과 ‘위로’의 변증법과 겹치는 이미지로서, ‘슬픔’에서 ‘위로’로 옮겨가는 자아의 존재론을 담고 있다.”(김옥성, 2010: 103)고 지적한 바 있다.

36) 감옥에 수감되기 전 도시샤대(同志社大) 시절, 윤동주는 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일깨우고, 일본의 후배들에게는 시대적 사명을 분발시키는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김인섭, 2009: 24-27)

IV. 결론

윤동주는 지상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한 도정(道程)으로 철저히 인식하였던 시인이다. 그 도정에서 불안과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 신앙을 재정립하면서 높은 신앙의 수준에 이르렀다. 그가 도달한 마지막 단계는 서로 갈등을 일으키던 두 자아의 모순을 통합하는 데까지 이름으로써 좀처럼 진입하기 어려운 ‘역설적 신앙’의 단계에까지 도달하였다.

그의 시의식을 형성하고 재편성하는 과정에는 어려서부터 익혀온 성경의 진리가 깊은 영향을 끼쳤다. 윤동주는 성경 지식에 해박하고 성경 상징에 익숙한 시인이다. 그의 시를 해석할 때 성경의 맥락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그의 시는 난해하게 다가오거나 왜곡하기 쉽다. 인유의 원천으로서 성경이 시에 인용될 때 윤동주의 시에서는 모방적이거나 순응적인 방식이 두드러지며, 극단적인 변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신앙의 단계가 높아지면서 시와 성경 사이의 경계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시와 신앙이 일체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본고는 신앙발달단계이론에 의거하여 윤동주의 시의식을 고찰하였다. 시의식과 신앙의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성경을 원천으로 인유한 시들을 논의 대상으로 하였다. 성경을 인유한 작품이 많지 않지만, 이들 시편은 윤동주의 시의식이 뚜렷한 변모를 보일 때 그 동기와 실재를 확인해볼 수 있는 긴요한 작품들이다. 짧은 생애와 많지 않은 작품을 통해서 그는 시의식의 변모와 더불어 여러 단계에 걸친 신앙의 성장을 보여주었다. 그가 연희전문을 입학할 무렵과 졸업할 무렵, 그의 시의식에 커다란 변모를 보이는데, 신앙발달단계 이론에 의해 체계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 입학 전후와 졸업 무렵을 각각 신앙의 회의기와 회복기로 규정하고, 이를 전제로 시의식을 규명하는 관점은 보다 개방적일 필요가 있음도 확인하였다.

기독교시를 비평할 때, 광동훈의 작업처럼 우리의 ‘마음’과 ‘의식’은 작용하는 범위가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발전하기도 하고 변모하기도 하는 ‘의식’의 측면과 보다 포괄적인 정신작용을 관장하는 ‘마음’의 측면을 병행하여 살펴볼 필요도 있다. 나아가 파울러의 신앙발달단계이론에서처럼 ‘신앙(faith)’과 특정종교의 ‘신념(brief)’을 구분해서 포괄적인 관점을 가질 때, 외래종교의 ‘신념’으로서의 기독교를 한국적으로 자기화하는 정신의 모습들을 왜곡하지 않고 온당한 의미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기존의

윤동주 시에 대한 높은 평가를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규명할 수 있었다는 성과와, 문학과 신학의 관점을 병행하여 한국의 기독교시를 분석, 평가하는 작업을 시도했다는 시론적(試論的) 의의를 가진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가스펠 서브 기획편집 (2005). 『성경 관용어 사전』. 생명의 말씀사.
- 곽동훈 (1979). “신과 인간 -윤동주 시와 그의 신앙과의 관계-.” 『국어국문학지』. 16.
- 김신옥 (1999). “J. W. Fowler의 신앙발달이론에 대한 비판적 소고.” 『영유아교육연구』. 2. 227-243.
- 김옥성 (2010). “윤동주 시의 예언자적 상상력 연구.” 『문학과 종교』. 15(3). 89-112.
- 김인섭 (2009). “윤동주의 ‘슬픈 天命’과 자기실현 - 일본체류기간의 시와 행적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3(2). 9-35.
- 김주연 (1984). “한국현대시와 기독교.” 『현대문학과 기독교』. 문학과 지성사.
- 김준오 (1982). 『시론』. 삼지연.
- 노승욱 (2011). “윤동주 시에 나타난 고백의 기독교적 성격 연구.” 『신앙과 학문』. 16(1). 83-102.
- 류양선 (2011). “윤동주의 시에 나타난 기독교 신앙 -『十字架』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31.
- 박시원 (1994). “신앙발달이론의 틀에서 본 한국의 목회.” 기독교사상. 38(7). 237-250.
- 사미자 (2001). 『종교심리학』.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손종호 (200). “윤동주 시의 기독교의식.” 『Comparative Korean Studies』. 279-304.
- 송우혜 (1988). 『윤동주 평전』. 열음사.
- 오세영 (1989) “역설.” 『시론』. 현대문학사 편. 현대문학사. 172-197.
- 왕신영 외 엮음 (1999). 『사진판 윤동주 자필 시고전집』. 민음사.
- 장종철 (1982). “파울러의 신앙발달과 기독교교육.” 『신학논단』. 16. 373-390.
- 조신권 (1986). “성경이 문학에 끼친 영향.” 『정신문화연구』. 31 177-180.
- 톰슨성경라이프성경편찬위원회 편 (1996). 『빅라이프성경』. 기독지혜사.
- 하야시 시게루 (2000). “京都時代の 윤동주 - 남병헌씨에게 듣는다-.” 『문예운동』. 67.
- 현길언 (2002). 『문학과 성경』. 한양대학교 출판부.
- F. 레스트, *Our Chirstian Symbols*. 이준직 역 (1982). 『기독교의 상징』. 한국기독교문화원.
- J.W.파울러 (1980). “미래의 기독교인과 교회교육.” 『기독교사상』. 24(10). 39-54.
- J.W. Fowler. *Stages of Faith*. 사미자 옮김 (1987). 『신앙의 발달단계』. 한국장로교출판사.
- O. F. 볼노브. 최동희 역 (1974). 『실존철학이란 무엇인가』. 서문당

ABSTRACT

A Revaluation of Yun Dong-joo's Poetic Achievement – Focus on The Bible Acceptance and 『Stages of Faith』 –

In-Seob Kim(Soongsil University)

This study is aimed at looking into the aspect of Korean Christian poets' acceptance of the Bible, and weighing up the level of the Christian faith expressed in their poetry works by accepting the Bible on the basis of a theologian's 'Stages of Faith' theory; first, this paper considered the case of the poet Dong-joo, Yun. Dong-joo, Yun is highly evaluated as a poet who achieved harmony between the profundity of a poem and level of faith. It's far from simple to judge the poetic consciousness from the theological perspective, but it might be possible to secure a new viewpoint of poet evaluation by doing mutual comparison of the poetic consciousness around the quality shared by a poem and faith.

Through this writing, this writer was able to re-evaluate the literary value of Dong-joo, Yun from the standpoint of faith development away from the eyes of a literary critic. Dong-joo, Yun adhered to the Bible during his lifetime, and showed turnings of life and qualitative changes in the world of poetry a few times. According to Fowler(J. W. Fowler)'s 'Stages of Faith' theory, Poet Yun's poem is evaluated to reach Stage 4 'Individual-Reflective Faith' which is the level of responsible faith in which he could stand on his own two feet after surmounting Stage 3 'Conventional Faith.' His swan song 「An easily written Poem」 written during the days of studying abroad in Japan is judged to show the possibility of Stage 5 'Conjunctive Faith(Paradoxical Faith).' This study drew the conclusion that Dong-joo, Yun was a poet and religious person as well having a high level of whole-personal value with his poems causing no conflicts between literary evaluations

and theological judgment. This writing has significance in that it managed to overcome the existing practice of poetic criticism which has understood the content itself of the poet's faith confession just as a poetic theme.

Key Words: Christian poets, Bible acceptance, poetry and faith, J. W. Fowler, 'Stages of Faith' theory

